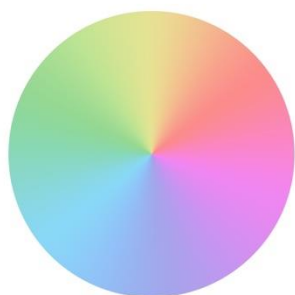


백고사지치
백묘표오사
간골난사영



백종원
81150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입시코디는 안합니다. 요리는 더더욱 안합니다.

잠이 안오니 이것저것 만들게 됩니다. 이번엔 개념완성을 잇는 문풀완성입니다.

저는 N 제나 사설 모의고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쓸데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설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N 제는 ‘창작’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소위 말하는) “사설틱하다”고 하는 어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출을 변형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성적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들과 2020 학년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의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총 28 문제입니다. 사실 말이 변형문제지 사실상 평가원, EBS 식 선지 구성을 거의 따왔습니다. 사용된 개념 모두 기본적 개념이 잡혀있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기출에서의 선지 구성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선지의 어휘는 함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출 변형 문제다 보니, 어디선가 많이 풀어본 듯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2014 학년도 수능부터 2020 학년도까지 평가원을 중심으로 변형 문제를 담아놓았으니, 기출도 한 번 더 보는 느낌으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독배기가 와장창 깨질 정도의 말도 안되는 지엽은 지양했으며, 그렇다고 보자마자 맞추는 문제 유형 또한 걸러냈습니다. 할 거 없을 때 풀이하기 좋을 것입니다.

주의. 선거분석문제는 아예 뺐습니다. 선거분석문제는 기출문제와 수능완성 뒷편 실전 모의고사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루는 게 약해서 혹여나 혼란을 주진 않을까 우려스러우면서, 굳이 이런 문제를 변형할 이유를 못느끼겠습니다.

2019년 9월, 새벽

책상에서 기출문제를 풀며

목차

Theme 1.	정치의 의미
Theme 2.	정치 참여 집단
Theme 3.	우리나라 국가 기관
Theme 4.	기본권
Theme 5.	미성년자 계약을 포함한 민법
Theme 6.	이혼과 유언
Theme 7.	부동산
Theme 8.	특수불법행위
Theme 9.	죄형법정주의
Theme 10.	형사 절차
Theme 11.	소년 사건
Theme 12.	노동자 권리
Theme 13.	소비자 권리
Theme 14.	국제법, 국제 사회

이번 9 월 모의평가를 공포와 파멸의 등급컷으로 이끈 파트는 단연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꼭 짚어서 출제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9 월 모의평가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은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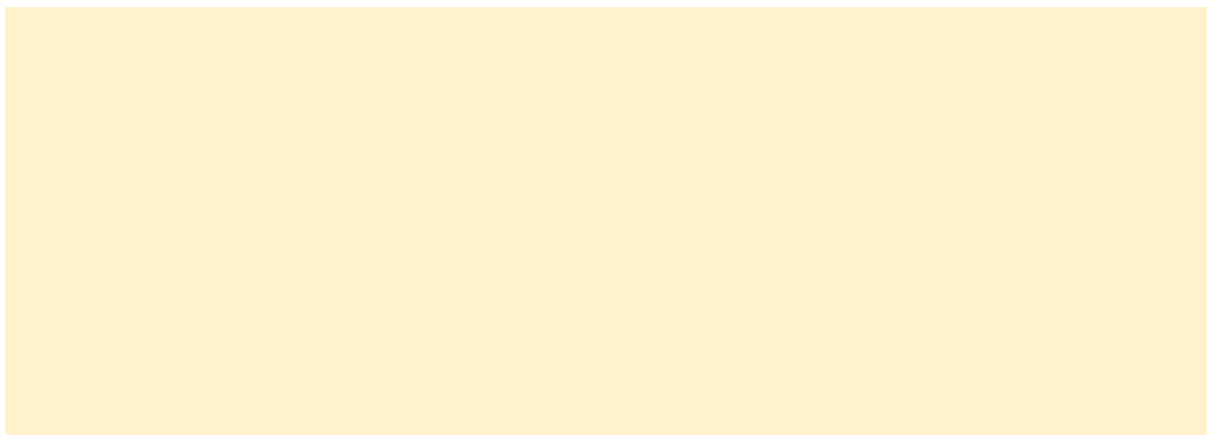
* 대항력의 발생 시점

대항력은 보통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0 시에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 (대항력 등)에 따르면, 임대차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음 날 00 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 전세권

전세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6 월과 9 월에 등장하지 않은 어휘니까요. 그러나, 연계교재에서는 여러 번 제시된 어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숙지는 해두는 것이 수능 대비에 좋을 것입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 303 조에 있는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B는 A 소유의 '홍익주택'을 2019년 4월 9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4월 10일 B는 홍익주택을 인도받아 살기 시작했고,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주하고 있다.

- 2019년 6월 15일 A는 홍익주택을 갑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며 갑이 A에게 대금을 완납하면 홍익주택이 갑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약정했다. 2019년 10월 18일 갑은 홍익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A에게 매매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 2019년 4월 16일 A는 C 은행에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홍익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20년 2월 24일 C 은행의 적법한 저당권 실행으로 홍익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D에게 3억 원으로 낙찰되었다.

- ① B는 2019년 4월 10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B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 ③ 갑은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홍익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 B에게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⑤ 갑이 A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정의 저당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2018년 3월 12일 A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며 자신의 X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갑은 2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설정한 후 보증금 2억 원에 X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을은 2018년 3월 17일 이사를 마치고, 3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며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 갑이 A 은행의 대출금을 받지 않자 A 은행에 신청에 의해 2020년 7월 14일 법원이 X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보기>

- ㄱ. 을은 3월 18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 ㄴ. A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을은 A 은행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ㄷ. 2020년 2월 19일, 을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계약은 소멸된다.
- ㄹ. X 주택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X 주택 등기부 갑구의 기재 사항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특수불법행위는 사실 제시문이 갖고 있는 탄탄한 스토리라인, 긴 제시문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은 풀이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왜냐면, 어지간해서는 제시문에서 함정을 파놓을 수 있는 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엔 명확하게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시문 자체보다는 역시 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중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연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A 가 운영하는 식당에 갑이 와서 가게 종업원인 을에게 “치즈돈까스 주세요”라고 주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갑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한걸까요? 종업원 을은 그 가게의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갑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가 바로 갑이 요구한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 계약 당사자가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대한 제시문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혹가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미 배상을 다 끝낸 일에 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미 다 끝난 이후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추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 불법행위 성립 선후관계

이 정도 쪼아야 사실 승리의 법정러라면 기본적으로 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함정에 걸려들면 장난 아닌 파트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할까요? 그럴 수 없죠.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자가 ‘피용자 감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닐까요? (다만 그 역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하에프빌딩' 건물의 소유주인 A 에게서 건물을 임차하여 배달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 전화한 을은 종업원 병에게 피자를 주문하면서, 자신은 올리브 알레르기가 있으니 올리브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귀찮게 여긴 병은 을의 요구를 주방장에 전달하지 않았다.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부 정이 배달을 하였으나, 을이 혼자 사는 집의 마당에 목줄이 없이 풀어놓은 반려견이 정의 발목을 물어버림으로써 정은 전치 4 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을은 올리브가 있는 피자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오른쪽 손가락이 마비되어 자신의 꿈이었던 미술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병은 해고를 당했고, 이에 분노한 병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갑의 가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 ①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연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를 진다.
- ③ 정에게 상해를 입힌 반려견은 마당에 자유롭게 있었으므로 을은 점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병이 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였더라도, 을은 병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병이 인터넷에 가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해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가 운영하는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갑(19 세), 을(14 세), 병(9 세)은 게임을 하던 중, 알바 B (18 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15 세)와 싸움이 붙었다. 그 과정에서 병은 망을 보고 갑과 을이 정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정은 을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정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PC 방을 뛰쳐나가다 1 층에서 C 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을 부딪혀 1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현재 갑, 을, 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은 A 에게 PC 방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 ① 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A 가 정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B 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A 가 정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은 A 에게 환불을 받을 수 없다.
- ④ 정이 C 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정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